

“지방 재정 여건 변화 대응…탄력 세율 적용해야”

더함 포커스 2020년 3월호 발간
광주 경제·사회·문화 분야
지속가능 발전 정책 대안 제시

광주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 윤영선) 부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정대근 소장·광주대 교수)는 광주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의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2020년 3월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이번호 정책칼럼에서 윤희철 전문위원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를 억누르는 수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광주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혜 전문위원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은 “지역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자체수입의 확보, 자체사업 개발 및 투



명 운영,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며, 사전에 전문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입남수 전문위원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분권 실현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협의회 활동을 통해 주민 주권을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대근 소장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서관 관련 통계자료를 비교할 때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더함 포커스는 정책칼럼과 함

께 김허경 전문위원 (전남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이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관련한 사진을 통해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인 오지호 화백이 광주에서 진행한 ‘오지호 화백 작품전’ (1948) 사진을 중심으로 오지호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는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박사급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정책 연구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 밀착형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보편적 삶의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남구, 꿀벌산업 육성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채밀기·소초광 등 8개 품목
오는 31일까지 농가 대상 접수

광주광역시 남구가 구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기자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남구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남구에 주소를 둔 양봉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용품은 벌통을 비롯한 소초광, 꿀벌의 먹이를 공급하는 화분, 상품 출하시 필요한 꿀병 상자 등 4개 품목이다. 각 제품별 단가는 벌통 4만3천원, 소초광은 1만9천원, 화분 7천300원, 꿀병상자 500원이며 각 제품 구매시 구매 단가의

60%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농가당 균형 지원을 위해 각 농가에서 사육하는 꿀벌 마릿수의 최대 상한선을 300군수로 결정하고 농가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양봉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기계에 대한 구매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품목은 벌통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와 꿀 채취에 쓰이는 채밀기, 건조기, 탈봉기 등 4개다. 리프트 1대당 가격은 250만원, 채밀기 220만원, 건조기 120만원, 탈봉기 100만원으로 구매 단가의 60%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다음 기자 jdu@namdonews.com



서구,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출범식

광주광역시 서구는 24일 구청에서 사회적경제 현장전문가, 기업인과의 소통·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출범식을 갖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논의를 했다. /광주 서구 제공

동구 지산2동, 광주시 공동체지원 사업 공모 선정

마을교육공동체 등 7개 분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은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 7개 분야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산2동은 ‘다함께 행복한 다복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17년부터 주민 주도 마을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 강구 등 마을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인권마을사업 ▲여성가족친화 마을사업 ▲도시정원사업 ▲생태문화마을만들기사업 ▲광주형 주민자치센터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7개 분야에 선정돼 9천800여만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북구,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30일까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
지역 비영리단체·주민 협의체 등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화사업 발굴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구내 비영리단체와 주민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2020 여성친화도시 주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친화특화마을 조성 ▲직장맘 행복교실 운영 ▲여성전문동아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여성친화특화마을 조성 사업은 ‘여성의

성장 안전을 지향하는 평등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안전 ▲돌봄 ▲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5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총 3천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직장맘 행복교실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평일 야간과 주말시간을 활용해 고충상담, 자조모임, 멘토-멘티 관계 맺기 등 직장맘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3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총 2천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소모임인 여성전문동아리를 선정해 총 4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야별 공모서류 일체를 오는 30일까지 북구청 여성아동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인 구정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와 성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일자리와 돌봄, 안전, 일·가정 양립 등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역량 있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2016년 재지정을 거쳐 다양한 여성친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다음 기자 jdu@namdonews.com

한 번은 읽어야 할 우리 고전 명수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 문장가의 수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다

우리의 고전 수필은 그 내용이 다양하다. 심오한 사상과 철학적 사유를 논하기도 하고, 삶의 무거움을 넘기는 익살과 해학이 담겨 있기도 하며, 권력자나 종교인의 위선에 대한 조롱, 도의 경지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기도 하다.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저자는 여러 고전들 속에서 우리가 읽어 볼 만한 수필을 골라 쉬운 문장과 정확한 번역을 통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대 문장가인 이규보, 이인로, 최자, 이제현, 권근, 성현, 김만중, 박지원의 글을 통해 현재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과 갈등, 인간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결연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를 발견한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대 문장가라고 일컬어지는 옛 선인들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 번은 읽어야 할 우리 고전 명수필 | 김영석 편역 | 15,000원 | 318쪽

문학의숲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서교동 481-5)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